

제14회 위기관리 경진대회

“안전진단, 우리 마을이 위험해요”

기본계획



2020. 08.

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

위기관리 경진대회

“안전진단, 우리 마을이 위험해요” 기본계획

1 목표 및 필요성

- 급변하는 위기관리 환경변화와 국민의 안전 욕구 증대에 따른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위기관리안전 전문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-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유행, 호우 및 태풍 피해, 대형 화재, 지진, 원전사고 등으로 전 국민의 안전 역량 향상이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되고 있음
- 대학(원)생의 위기관리 및 생활안전 연구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고 위기관리안전 전문성을 확보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함
-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위기관리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도로, 환경, 시설, 먹거리 등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·개선하여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

안전진단, 우리마을이 위험해요 계획

- 주 최 :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, 이재민사랑본부,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
- 주 관 : 충북대학교 LINC+ 사업단, 녹색청주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,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전문화위원회
- 후 원 : 4.16 재단,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한국연구재단, 충북대학교 위기관리 및 생활안전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
- 참가자격 : 학원생, 초·중·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, 녹색청주협의회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(5명 내외 팀 구성 권장)
- 참가주제 :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자!!!
- 주요내용 :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소 제보 및 위험 취약지역 현장 모니터링 결과
- 제출형식 : 자유 형식 (유튜브 동영상 또는 PPT 형식 권장)
- 접수기간 : 2020년 8월 3일 (월) ~ 2020년 10월 23일 (금)
- 접수방법 : 참가신청서와 함께 동영상 또는 PPT 등의 형식을 이메일로 제출
 - * 접수는 10월 23일 23시 59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제출 후 반드시 문자로 연락하여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것
 - * 이메일 : lcdv119@hanmail.net
 - * 문의 및 확인 연락 : 010-9487-2197
- 심사기준 : 5개 지표 × 20점 = 100점
 - 기획력 :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
 - 독창성 : 작품의 창의성
 - 완성도 :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
 - 작품성 : 자연스러운 구성인지, 주제를 짜임새 있게 다루었는지
 - 설득력 : 주제에 대해 공감하게 하는지

□ 시상일시 : 2020년 11월 6일 (금) 14:00~18:00

□ 시상장소 :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2층 세미나실

□ 시상내역

- 최우수상 (충북대학교 총장상) : 1팀, 상장 및 상금 40만원
- 우수상 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상 ·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상)
: 2팀, 상장 및 상금 각 25만원
- 장려상 (녹색청주협의회상 ·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소장상)
: 2팀,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

※ 신청팀이 많을 경우, 시상팀 수가 추가될 수 있음.

□ 세부일정

| 시 간 | 주 요 내 용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4:00~14:20 | 개회식 |
| 14:20~15:20 | 위기관리 전문가 초청 강연 |
| 15:40~16:00 | 휴식 |
| 16:00~17:30 |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|
| 17:30~18:00 | 기념촬영 및 폐회 |

□ 홍보방안

- 공동 주최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 게재
- TAS를 통한 관계자에 대한 전체 이메일 발송
-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홈페이지 게재

- 국내에 위기관리안전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안전 전문서비스 선진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문화 인식을 제고할 기회 제공
-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속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기관리 전문성과 안전 역량을 기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계기 마련
- 향후 일반 국민을 포함한 초·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안전공동체 선진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